

# 작년 수능 수준 난이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 출제

## 9월 모의평가

**EBS 교재 연계율 50% 이상 기록  
사고력·독해력 필요 문항 증가  
"수험생, 시간관리 능력 점검해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 수능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6월 모의평가보다 일부 영역의 난도를 높여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교사단과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교육과정 핵심 개념에 기반해 출제됐다"며 "공교육 학습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지만 정확한 독해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도 변별력을 확보해 수험생들이 기본기 학습과 시간관리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국어, 공교육 기반... 킬러문항 없어**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시행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고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독서·문학)과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으로 출제됐다. 지문 정보량이 적정하고 구조가 단순해 학교 수업으로 익힌 독해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킬러문항은 배

제됐다.

독서에서는 예술·과학기술·사회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됐고 문학 작품 8편 중 4편이 EBS 연계교재에서 출제됐다. 선택과목도 연계교재의 문항 아이디어와 개념을 활용했다.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SF 영화 사례 적용을 다룬 8번, 오디오 신호 압축을 다룬 17번, 갈래복합 24번, 고전소설 34

번, 제안서 계획과 초고를 연결하는 39번, 격 조사·보조사 결합 유형 분석 38번이 꼽혔다. 전체 문항의 51.1%가 EBS 교재와 연계됐다.

◆ **수학, 과목별 난이도 조정... 변별력 확보**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부 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해 변별력을 확보했다.

수학 I에서는 지수함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등 11문항이 출제돼 기본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했다. 수학 II는 극한·연속, 미분, 적분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고 과도한 계산은 배제됐다.

미적분은 무한등비급수와 적분을 다룬 29·30번이 쉽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며, 기하는 평면벡터를 다룬 30번이 고난도로 꼽혔다. 확률과통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며 곱셈정리와 여사건을 활용한 문항이 상위권 변별력을 높였다.

전체 문항 중 절반인 15문항이 EBS 교재와 연계됐다.

◆ **영어, 기존 출제기조 유지**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나 6월 모의평가보다는 난도가 높아졌다. EBS 교사 평가단은 "지문과 선택지를 충실히 읽으면 해결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됐으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항 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신유형 없이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 추상적인 지문은 배제돼 공교육 학습만으로 대비할 수 있었고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늘었다는 게 교사단 분석이다.

EBS 연계율은 55.6%로 전체 45문항 중 25문항이 연계됐으며 듣기·말하기는 교재 대화와 담화를 재구성한 문항이, 읽기·쓰기는 주제와 소재를 활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음악 이론과 색의 순환성을 다룬 21번(함축 의미 추론), 글 초반 빈칸 배치로 글 전반 이해가 필요한 34번(빈칸 추론), 단락 연결 단서 파악이 어려운 37번(글의 순서), 역사 유물 논리적 공백 파악이 필요한 39번(문장 삽입)이 꼽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점자 서비스는 GH 대표 홈페이지 내 사업·청약·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본문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전자 콘텐츠도 자동으로 연동되어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이용자는 점자 단말기를 연결해, 각 콘텐츠 옆에 마련된 '뷰어 버튼'을 클릭해 바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전자점자파일(BRL)과 점자프린터용 파일(BRF)을 내려받아 내용을 읽을 수 있다.

GH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디지털 격차 없는 정보 환경(디지털 배리어 프리)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디지털 접근성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전자점자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GH는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한 웹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강화해, ESG 가치 실현과 사회적 책임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교육청 "서울 교육정책, 직접 참여하세요"

11개 교육지원청 순회 공론장 개최  
정근식 교육감, 질의응답 등 현장소통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직접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교육+플러스 교육지원청 학부모 공론장'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전면 개최한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론장은 민주적 학교자치와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11개 교육지원청이 순회하며 총 2200여 명의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각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



고, 협의회·연수·워크숍·공론장 등을 운영해 학부모의 자발적 학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제안된 정책을 내년 서울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장은 4일 북부교육지원청에 이어 강동송파(9월 16일) 중부(9월 25일) 남부(10월 14일) 성동광진(10월 21일) 서부(10월 30일) 강남서초(11월 4일) 성북강북(11월 7일) 동부(11월 25일) 강서 양천(12월 2일) 동작관악(12월 9일) 순

으로 열린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150~2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현안별 심층 토론을 벌인다.

정근식교육감(사진)은 북부를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 공론장에 모두 직접 참석해 학부모와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 교육감은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며 "학부모의 지혜와 경험이 더해질 때 서울교육은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교육청·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5 | 해질 / 18:57

9월 4일 (木)  
음력 : 7월 13일

수도권 날씨  
24~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시, 학교급식소 위생 점검... 가을철 식중독 막는다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력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봄 개학철 점검을 마

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 대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

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학교 급식에 따른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활동도 이어간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김정은, '열차'로 베이징行... 태영호 "늙은 전용기 탔"  
▲北김주애 국제사회 첫 눈도장... 외신, 후계자 신고식 주목

▲구글, 美 검색 독점 소송서 기업 분할 피해... "AI 시대 경쟁 반영"  
▲"日서 韓여성 살해한 韓남성, 현지 당국엔 접근 않겠다" 서류 제출해



▲日이시바 '정치 명운 결정' 조기 총재選 열리나... 아소파 압박 /사진뉴스스  
▲시끄러운 도로변 살면 뇌졸중 위험 12% ↑... 덴마크 연구진 경고